

월요광장

의롭고 자랑스러운 호남 사람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요즘 적폐 청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되는 가운데 문히고 숨겨졌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역시 우리 호남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된다. 의(義)를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 같이 버릴 줄 아는 의기의 사람들이 호남인들임이아 진즉부터 알려진 일이다.

국난을 당해서는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일이나 무고와 모함을 걸려 정경당하던 정암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화순의 능주에서 30대 젊은 나이로 운명하자, 그의 억울한 죽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해, 조광조와 뜻을 함께했던 사람들 이른바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는 어진 이들이 호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점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호남 3걸'이라는 분들은 모두 조광조와 뜻을

함께하다가 낙척되어 불우한 일생을 보낸 분들이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란에 분연히 걸기하여 진주의 남강에 몸을 던졌던 '진주의 3장사' 또한 호남의 의인들이 아니었던가. 경상도에서는 3장사가 다른 사람이라는 턱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분명히 최경화·김천일·고종후 등 호남의 3장사라고 정확히 못 박고 있다. 제봉 고경명이 두 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무등산의 호랑이 총장공 김덕령은 20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런 호남의 남아들은 불의와 부정에 눈을 감지 못해 생명을 내걸고 의를 지키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이런 정지가 썩어 문드러지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가 하면 매관매직이 나라를 병들게 하자 보국안민(輔國安民), 적양척왜(斥洋斥倭)의 민족정기를 내걸고 죽음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동학농민군들의 충천하던 의기도 호남인들이 일으킨 애국 운동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 등 민족이 수난을 당할 때마다 호남인들은 앞장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투쟁하였다.

이런 의리의 고장이 호남이기에 호남을 '의향(義鄉)'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롭고 자랑스러운 호남을 언제부터가 소외시키고 혐오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 호남 사람이란 끼워 주기를 싫어하고 배제시키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나타났었다.

그들이 누구이던가. 독재자이자 독재자를 옹호하는 세력이었다.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던 세력이었다. 나랏돈을 출처 먹거나 국고를 도적질하던 세력이었다. 인권을 탄압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말살하던 세력이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의 자유를 가로 막으며 각계각층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세력이었다. 권력의 위세로 부정 청탁을 통해 공공기관에 부당한 사람을 취직시켜 주는 세력이었다.

이로운 호남 사람들은 그러한 세력들이 시키는 대로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 세력에 호남 사람이 들어 있는 경우는 진실이 폭로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런 세력에게 발붙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다른 지역 출신에 비교해서 분명히 적었다. 이유는 그것뿐이다. 불이나 부정에 가담하기를 꺼리는 호남인들의 의로운 정신 때문에, 위에 열거한 온갖 세력들은 호남인 끼워 주기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기울어 버리고 말

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를 확신했던 국정원 댓글부대는 비리와 부정의 집단이요, 국기를 흔드는 불법 행위 집단이었다. 그런 불법 집단을 꾸리면서 최고 명령권자의 입에서 호남 사람은 뺄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호남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정의의 사람이 증명된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잘못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과 불법이 탄로될까 두려워, 정의로운 사람들은 끼워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으니, 우리 호남인들은 얼마나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들인가를 만천하에 증명해 주고 말았다.

댓글부대의 불법·탈법의 악행을 수사하던 수사 검사 중 한 사람의 할아버지가 호남 사람이었으니 그 수사관은 수사팀에서 제외시키라는 최고 명령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남 출신 검사도 정의로운 사람이 가깝다고 그를 배제시키라고 했다면 이 또한 우리 호남 사람들의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외받고 배제당하는 호남 사람들, 잘못은 나쁜 세력에게 있지 우리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 기속지 말고 영원토록 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자.

법조칼럼

감소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단상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다. 즉,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 하에 국가는 불임 부부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혼 부부에게는 주택 자금을 우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부부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 조치로 충분할까?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24로 세계 최하위층(세계 184위)에 속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세대가 지나면 우리 사회의 동량지체인 미래 세대의 인구가 기성세대에 비해 40% 감소된다는, 재앙에 가까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세계 4위로, 노령화는 최상위층에 속한다. 이것은 여러 명의 젊은이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하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한 명의 젊은이가 여러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미래 세대의 출산을 저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노동 능력이 있는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공적 부조 및 사회적 부

양을 요구하는 인구는 증가하여 극단적 고령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명약관화하다. 필자의 관점에서 현실점에 이에 대한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인식의 전환이다. 즉, 위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는 결혼·출산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동성결혼을 할 수 있느냐'는 자유권적 성격과 관련 있다.

반면 '결혼을 하게 해 달라'는 것은 자유권적이지 아니라 청구권적이다.

자유권적 권리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구권적 권리는 국가에 대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혼·출산할 권리가 자유권적 권리에 그친다면 국가가 결혼 장려나 출산 촉진에 개입할 여지가 없거나, 청구권적 성격을 인정하면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영역에만 속하지 않게 되고 국가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결혼·출산할 권리를 자유권적 권리에서 청구권적 권

리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법제화다. 기존 결혼 장려 및 출산 촉진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청구권적 성격을 가미하여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은 필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권적 권리를 넘어 청구권적 권리로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히 다른 사회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도외시키고 그 모든 부담을 젊은이에게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즉 '혁신적인' 결혼관 변화에 맞추어 이제 사회도 다시 '혁신적인' 변화를 할 때가 된 것이다.

물론, 결혼·출산할 권리에 청구권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국가 재정적인 문제, 법제화의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이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직면한 인구 절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멸과 같은 충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중지를 모아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기고

공립 미술관의 길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소

홍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요 도시마다 많은 예산을 공립 미술관에 투여하는 이유는 시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 미술관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1차적 향유 장소로서 기능한다. 또한 많은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광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알려주는 관광장소로 기능한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의 미술관은 전시 시설뿐만 가능하지는 않는다. 세계적 수준의 소장품이 부족한 한국의 공립 미술관들은 외부에서 작품을 빌려오는 기획 전시에만 치중해 왔으나, 21세기 들어 세계의 미술관들은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갖추는 경향이 강하다. 21세기 미술관은 관람객에게 전시와 더불어 교육, 체험, 민방, 휴식 등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어린이 문화센터'가 대표적인 예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07년 중외공원으로 신축되면서 광주YMCA와 함께 '어린이문화센터'를 공동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한 한국에서도 독보적 존재인 YMCA의 노하우와 광주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미술 교육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보

기 위함이었다. 1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교육프로그램 수는 180강좌, 수강생 수는 250명에 달한다. 수강생 수만 그러하다. 어린이문화센터는 어린이 혼자 방문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손을 잡고 따라서서 교육시간 동안 산책을 하거나 전시를 관람한다. 광주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진 미술관들도 강좌 수는 몇십 개, 수강생 수는 몇백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국립현대미술관과 각 공립 미술관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다.

전시 또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를 위한 전시가 되어야 한다. 전환민물적인 전시는 시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일보의 기획시리즈에서 보도된 서울시립미술관의 건축과 도시 재생을 연결한 전시는 과거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흔히 했던 어떤 블록버스터 전시보다 훌륭하다. 광주시립미술관도 지난 가을에 한국 공립미술관 최초로 '4차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시대의 이슈를 선택하는 신선한 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래를 주제로 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최초로 협업하여 디자인비엔날레는 물론 미술관에도 모두 좋은 결과를 낳은 전시도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모두가 미술관과 중외공원이 시민의 문화 시설로 가능하

도록 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많은 미술인이 알고 있듯이, 광주시립미술관만큼 많은 전시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공립 미술관은 없다.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본관 하나만 운영하면 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본관 전시 이외에도 어린이문화센터(본관), 청년예술지원센터(사직동), 광주시립사진전시관(광주 문화예술회관), 하정음미술관(상록공원), G&J갤러리(서울 인사동), 북경장차센터(중국 북경), 국제레지던스스튜디오(중외공원), 금남로본관(금남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처음 생길 때도 많은 미술인들이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을 위한 미술정책'을 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미술관보다 더 잘하자', '시민에게 열린 미술관이 되자', '지 미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이 되자'라는 정신적 자세는 광주만의 것은 아닐지도 모르나, 광주만큼 훌륭히 소화하는데도 없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힘이 합쳐서 시민의 미술관이 되었다는 데에 그 뜻이 더 깊다. '공립 미술관의 길'이란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社說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도심 활성화 기폭제로

정부가 남은 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광주·전남에서 여덟 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내년 3~5년간 50억~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했던 구도심 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엇그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을 의결했다. 광주에서는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남구 양림동을 비롯해 서구 농성동, 광산구 도산동 등 세 곳이 선정됐고, 전남에서는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순천 장전동과 지전동, 나주 영강동 등 다섯 곳이 뽑혔다.

유형별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중심의 우리 동네 살리기형, 골목길 정비와 생활 편의 시설 조성을 골자로 한 주거지 지원형, 골목 상권이 존제된 지역에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는 일반 근린형, 상업·공공 시설 조성으로 쇠퇴한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중심 시가지형에 각

각 두 곳씩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2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에서 신청한 31곳 중 백운광장 등 상당수가 탈락했지만 대표적인 구도심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정이 열악한 저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 속에 도심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전면 철거를 수반하는 기존 정비와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다양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됐지만 건설·토목 공사 위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데다 예산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주진 내몰림을 막고 지역성과 역사·문화를 살린 개발 모델을 만들어 구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찍 찾아온 한파 소외계층 피해 없게 만전을

한파가 평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빨리 찾아오면서 소외 계층의 겨울나기가 한결 힘들어지고 있다. 아침저녁 영하의 강추위로 인해 올 겨울 들어 한랭질환 환자가 80여 명에 이르며, 사망자도 전남 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명이 나왔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 환경의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조손가정 등 빈곤층은 일찍 찾아온 혹한에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하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광주 지역 4만여 명, 전남 지역은 12만여 명이 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난방에 취약한 단독 주택에 사는 노인은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와 전남의 소년소녀 가장도 1000여 세대나 된다.

소외 계층은 겨울나기가 힘든 단독 주택이나 가건물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주택에 살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버티는 일이 허다하다. 기름과 연탄을 아끼면서 이불과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이들도 많아 자칫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들이 차가운 방에서 배고픔을 겪으며 사고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공무원들은 폭설과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소외 계층이 엄동설한에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는 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현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추위에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하는 주거 공감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난방 대책은 물론 한랭질환은 없는지 체크해 주길 바란다.

특히 노인들은 한파에 매우 취약하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민간단체들 역시 송년 시즌을 맞아 취약 계층이나 소외 시설을 찾는 뜻깊은 시간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無等鼓

요즘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갖춘 컴퓨터와 로봇 등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인류는 노예로 전락, 결국엔 AI에게 지구를 넘겨주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75)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AI의 발전이 인류에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력을 다해 인류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며 "AI가 인류 문명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그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한 인구 절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멸과 같은 충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중지를 모아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인공지능과 신성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사고 능력(思考能力)'을 '기계'도 지닐 수 있으며, 기계가 더 나아가 인간보다도 뛰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지구를 '인간과는 다른'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감옥'으로 상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로봇들의 반란으로 인류'가 멸종하는 일적이라고 있다. 호킹 교수는 "AI 시스템이 인류의 의지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요즘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상을 살펴보면 그 같은 걱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둑의 세계 최강자인 AI 기사 '알파고 제로'를 개발한 '알파 제로'다. 알파고는 개발한 영국 딥마인드에서, 인간의 도움 없이 독학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장기와 체스에서 세계 최강 소프트웨어를 능가했다.

인류가 자신들이 만들어 낸 AI를 방치해 두고 속수무책으로 굴종의 삶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장기적으로 인류는 AI를 자신의 육체와 결합시켜 영생과 신성을 확보할 것이라 는 하라리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장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우편물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